



## 호수와 바다를 가슴에

새해맞이 평택 나들이

여행작가 김 초 록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벌써 남녘에서는 봄 소식이 들려오는 이즈음이다. 요즘 산하는 겨울 색깔이 뚜렷하다.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1월과 2월은 연달 듯지 않게 분주한 달이기도 하다. 이런 요즘이지만 2004년 희망을 안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새해맞이 여행을 떠나 보자. 서해안 개발의 거점 도시인 평택은 바다와 호수, 그리고 광활한 평야까지 볼 수 있어 여행의 맛이 특별하다.

평택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교통의 요지답게 어디서든 쉽게 갈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으로 빠지면 중간 중간에 평택호를 비롯해 아산만방조제, 포승공단, 평택항 등 눈길을 끄는 곳들이 많다. 특히 아산만방조제는 서해대교와 평택항이 들어서면서 하루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충남 아산과 맞붙어 있어 '아산호'로도 불리는 평택호는 2km의 바닷길을 방조제로 쌓아 만든 인공 담수호다. 요트 유람선 같은 수상 레저 시설을 즐길 수 있고, 붕어 잉어 등이 많이 잡혀 낚시꾼들이 즐겨 찾고 있다. 호반을

따라서 쫓잡과 음식전이 즐비하고, 호수 주변 곳곳에 잔디밭과 오솔길이 나 있어 휴식을 취하기 딱 좋다. 특히 38번 국도를 따라 아산만방조제 ~34번국도 ~삽교천방조제 ~송악 나들목 ~서해대교까지 둘러보는 드라이브 코스는 멋진 추억거리를 안겨준다. 더욱이 저녁노을이 질 무렵, 차를 방조제 옆에 세우고 제방 위에 올라 서해대교와 아산단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노라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문의 평택호 관리사무소(681-8688).

가족들과 연인들이 주로 찾는 평택호 관광지 안에는 피라미트 형태의 평택호예술관이 자리잡고 있다.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져 별난 분위기를 풍긴다. 전시실이 마련된 미술관(1층)과 전문 공연장(2층), 명상의 장(3층)으로 이루어진 예술관은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 전시는 물론 평택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람문의 659-5065.

평택호와 평택항은 지척이다. 중부권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평택항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인 중국의 관문이다. 특히 중국과 해상정



기항로가 개설돼 물류와 관광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현재 평택항에서 중국 산둥성 영성시 용안항까지 주 3회 국제카훼티가 운항하고 있다. 입항 일시:대주 월·수·금요일 08:00, 출항 일시:대주 월·수·토요일 18:00. 항해거리 210마일, 항해시간 14시간). 문의 대통령운(683-0992, 5). 평택항은 크게 외항과 내항으로 나뉜다. 자동차전용부두와 포승국가산업단지, 서부두,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이 들어선 외항은 일년 내내 활력이 넘친다. 평택항 입구(포승면 단호리)에는 평택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이 들어서 있다. 개방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682-5663. 매주 월요일 휴관.

평택호(항)에서 38번 국도를 따라 평택 시내 쪽으로 나오다 오성면 소재지에서 청북 방면으로 들어선다. 농업박물관이 있는 평택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길이다. 계절별 농기구 및 생활소품 등을 전시해 놓은 농경유물역사관과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초가, 모양새다다 쓰임이 다른 각종 장독대, 곡식을 탈곡 또는 체분하는데 필요한 연자방아와 들절구 등을 볼 수 있는 야외전시장까지 갖추어 놓았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지도기획팀(☎ 659-4811)에 연락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방시간 연중 무휴(09:00-17:00). 입장료: 무료. 이와 함께 자생식물, 허브식물, 수생식물, 아열대식물 등을 한데 모아 놓은 자연테마식물원에도 꼭 들러보자.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식물 종류는 150여 종. 가정 원예 소품인

연못, 소형폭포, 석등, 물확, 장독대, 병풍석, 망부석, 들계석, 두꺼비석, 촛대석, 코브라석, 다듬이돌, 맷돌 등은 아스라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개방 시간: 연중 무휴(오전 9시-오후 5시)입장료: 무료. 문의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과 화훼특작팀(www.pasi.gyeonggi.kr, ☎ 659-4833).

이밖에 평택의 볼거리로는 심복사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65호)과 만기사의 철조여래좌상(보물 제567호), 그리고 원균 장군 묘 등이 있다. 원균 장군은 평택에서 출생해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경상북도 수군절도사가 된 인물이다. 임진왜란 때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으나 단지 패전했다는 이유로 잊혀져 있다 400여 년이 지난 근래 들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또한 송탄 관광특구에 들어선 신장동 쇼펄물은 영문 네온간판이 즐비, 서울 이태원 거리를 방불케 한다. 1995년 연간 20여 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다.

▶찾아가는 길=수원-43번 국도(발안)-39번 국도-안중5거리-평택호 관광지-평택항. 평택-38번 국도-안중5거리-평택호관광지. 평택에서 평택호까지 30분마다 버스 운행(25km, 40분 소요). 수원, 온양에서도 시외버스 운행. 농업기술센터는 경부고속도로 평택(안성) 나들목에서 서쪽(평택항 방면)으로 29km 지점,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에서 동쪽(평택시내



쪽)으로 14km 지점. 평택공용버스터미널  
(652-2618), 성호여객(652-2615).

▶잠자리=평택호 주변에 별장파크(682-6590), 대영장여관(682-5494), 서해관  
광호텔 683-8000 등과 평택시내에 송탄  
관광호텔(666-5101), 영천관광호텔  
(663-4000), 평택관광호텔(654-3331),  
호텔 가보(658-7700), 거성파크여관

(652-6580), 경림여관(652-3639) 등이  
있음.

▶맛집=평택호 주변에 대규모 횡집촌이  
형성돼 있어 싱싱한 생선회를 맛볼 수 있  
다. 등대횡집(681-3000), 팔각정횡집  
(682-1583), 샘골가든(683-4846), 삼  
다도횡집(681-6370), 솔밭식당(681-  
3382), 호성식당(681-7786) 등 

